

# 오키나와에서의 민속적 시간의 재편 - 난조 시(南城市)의 ‘하쓰우간(初拜)’ 사례 고찰 -

김 희 영\*

(e-mail: khy6191@hanmail.net)

## < 목 차 >

1. 머리말
2. 난조 시 신자토(新里)의 2016년도 ‘하치우비’ 사례
3. 오키나와에서의 민속적 시간의 재편
4. 맺음말

키워드: 沖縄(Okinawa), 民俗(folklore), 旧曆(luni-solar calendar), 初拜(Hatsuugan/Hachiubi), 御願解き(Uganbutuchi)

## 1. 머리말

1872년에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는 서구의 역법인 태양력의 도입을 선포했고, 그 직후인 11월 15일에는 진무 천황(神武天皇) 즉위기년인 ‘황기(皇紀)’를 제정했다.<sup>1)</sup> 여기에서의 태양력, 즉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은 오늘날 세계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법이다.<sup>2)</sup>

1872년과 1879년의 두 차례에 걸친 ‘류큐처분(琉球処分)’에 의해 일본의 일개 현(県)으로 편입된 오키나와 사회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태양력을 뜻하는 신력(新曆)에 따라 생활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마을행사나 신사(神事) 및 가정 내 행사 등은 구력(旧曆)에 따르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 신력과 구력의 두 흐름이 있는 것이다.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일본문화학 전공.

1) 김미화(2016)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紀年法-제왕의 시간에서 민족/국민의 시간으로」 『사회와 역사』 제110집, 한국사회사학회, p.173.

2) E.G. 리처즈 저·이민아 역(2003) 『시간의지도: 달력』 까치, pp.288-308.

일본에서 구력이란 1872년까지 사용되어 온 태음태양력을 가리킨다.<sup>3)</sup> 고대에는 달이 차고 기움에 따라 시각을 아는 태음력을 바탕으로 자연의 변화를 살피고 어업과 파종·수확 시기를 가능했다. 이 태음력에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24절기를 포함시킨 것이 태음태양력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아스카(飛鳥) 시대에 태음태양력이 전해져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 본토에서는 구력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오키나와에서는 류큐 왕조 시대에 구력이 도입되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제사·행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특히 오키나와 본도 남부의 이토만(糸満)이나 미야코지마(宮古島) 등지에서는 어촌이라는 점도 있어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구력 문화가 생활 전반에 깊이 침투해 있다.<sup>4)</sup>

그렇다면 왜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구력이 뿌리 깊은 것일까. 그것은 중국 문화의 영향이 컸다는 점 외에 오키나와가 본토와 격절되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이라는 점에도 기인한다. 태풍이나 더위 등의 기상조건 속에서 어업이나 농경을 위해서는 조류의 간만이나 파종·수확 시기를 알 수 있는 구력이 필요 불가결했고, 이 때문에 풍작·풍어나 건강을 기원하는 문화가 독자적인 결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민속행사인 설은 전후에 일어난 ‘생활개선’ 및 ‘신정운동’의 영향으로 1960년대부터 주로 신력으로 쇠게 되었지만, 여타의 민속행사는 여전히 구력으로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정월 행사와 역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최근 논고로 히라야마 노보루(平山昇)의 「근대일본의 정월 행사에서의 구력과 신력-니시노미야 신사와 도오카에비스를 사례로-(近代日本の正月行事における旧暦と新暦-西宮神社十日戎を事例に-)」를 들 수 있다.<sup>5)</sup> 히라야마 노보루는 여기에서 새로운 정월 참배의 형태인 ‘하쓰모데(初詣)’가 철도의 발전과 관련되며 메이지 시대 중기에 성립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구력과 신력에 각각 행해지던 도카에비스(十日戎)라는 정월 참배 행사의 변천을 근대문물인 철도의 영향

3) 謝荔(2010) 「日本社会における「時」の意識の変化-「時」関連資料の文化財指定、旧暦への再認識に関する一考察」『多摩論集』第26号, 法政大学, p.131.

4) <http://www.city.itoman.lg.jp/docs/2013020101921/>(검색일 2017.08.26.)  
<http://www.city.miyakojima.lg.jp/kanko/index.html>(검색일 2017.08.26.)

5) 平山昇(2014) 「近代日本の正月行事における旧暦と新暦-西宮神社十日戎を事例に-」『동아시아문화연구』제5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 pp.73-93.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실시한 난조 시(南城市) 사시키 정(佐敷町) 아자(字) 신자토(新里)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кина와의 새해맞이 민속행사 중 공동체 단위로 거행되는 ‘하쓰우간(初拜)’<sup>6)</sup>이라는 의례에 있어서 그 시행시기의 재편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난조 시는 오кина와 본도(本島) 남부의 동해안, 현도(県都)인 나하 시(那覇市)에서 남동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006년 1월 1일에 사시키 정·지넨 촌(知念村)·다마구스쿠 촌(玉城村)·오자토 촌(大里村)의 네 정촌(町村)이 합병되어 생긴 시로서 옛 류큐를 통일한 쇼하시(尚巴志)와 관련된 사적이 많은 곳이다. 난조 시의 사시키 정에 속하는 아자 신자토는 인구 약 950명 규모의 마을이다.

신자토의 현지조사에서는 구장 니시무라 마쓰세이(西村松青, 남, 66세, 공무원) 씨와 서기 미네이 아키라(嶺井朗, 남, 63세, 농업) 씨, 그리고 니시무라(西村) 문추(門中)와 사쿠마(佐久真) 문추의 도움을 받아 마을 단위 및 문추 단위의 ‘하치우비(初拜)’를 참여 조사했다.

한편, ‘하쓰우간’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척 신 또는 개조와 연고가 있는 곳들을 마을 및 문추 단위로 순배하는 의례를 말한다. 특히 오кина와에서 문추 단위로 이루어지는 ‘하쓰우간’은 1997년도에 오кина와현교육청문화과에서 편찬한 『아가리우마이 등 관련배소 종합조사 II(東御廻り等関連拜所総合調査II)』라는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sup>7)</sup>

요컨대 이 ‘하쓰우간’이라는 민속행사의 시행시기 변경과 그로 인한 변화를 짚어봄으로써 민속적 시간의 재편에 따른 오кина와 민속행사의 성쇠를 짐작하는 데에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오кина와 사회에서 구력과 신력이라는 이중적 체제의 역법 사용이 사람들의 생활 주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이러한 역법 사용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되어가게 될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6) 새해 들어 처음으로 행하는 ‘우간(御願)’은 오кина와 전역에서 대체로 ‘하쓰우간’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신자토에서는 ‘하치우비(初拜)’라 발음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하쓰우간’ 일반이 아니라 특히 신자토의 ‘하쓰우간’을 가리키는 경우에 한하여 ‘하치우비’로 표기하겠다.

7) 沖縄県教育庁文化課 編(1997) 『東御廻り等関連拜所総合調査II』 沖縄県教育委員会, pp.3-67.

## 2. 난조 시 신자토(新里)의 2016년도 ‘하치우비’ 사례

신자토에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중행사는 12종이 잔존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는 구장이 도맡고 있다.<sup>8)</sup>

신자토의 정월 민속행사로는 ‘와카미지(若水)’, ‘하치유레(初寄合)’, ‘하치우비(初拜)’, ‘하치우쿠시(初起し)’, ‘난카누슈쿠(七日の節日)’, ‘다누유에(田の祝い)’, ‘주루쿠니치(十六日)’, ‘도시비스지(年日祝)’가 있다.

1월 1일은 ‘쇼과치(正月)’라 하여 아이들이 우부가(産川)에서 떠온 와카미지를 히누칸(火の神)과 불단에 올리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함과 함께 아이들에게 미지나디(水撫で)를 행하며 일 년 간의 무사를 빈다.<sup>9)</sup> 히누칸은 가정의 수호신인 동시에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히누칸이 다른 신들에게 그 기원을 통하게 해준다고 믿어지고 있다. 2일에는 ‘하치우비’ 및 ‘하치유레’를 행한다. ‘하치유레’는 주민들이 모여 새해 인사를 주고받고 회의를 통해 주요 연간행사 등을 정하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행하지 않는다. 3일의 ‘하치우쿠시’ 때에는 선달그믐에 넣어두었던 농기구를 꺼내 발농사가 무사히 행해지도록 기원한 후 농사일을 시작한다. 설이 끝나는 날인 7일의 ‘난카누슈쿠’와 15일 전후의 길일에 행하던 ‘다누유에’도 현재는 행하지 않는다. ‘구소(後生)의 설’이라고도 하는 16일의 ‘주루쿠니치’에는 문추가 모여서 조상의 묘를 청소하고 각 가정에서 찬함을 지참하여 묘 앞에 바치는 습속이 있다. 1월 중에 행하는 ‘도시비스지’는 새해의 간지(干支)에 해당하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축하하는 행사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현존하는 신자토의 정월 행사에서 ‘쇼과치’와 1월 중에 행하는 ‘도시비스지’는 신력으로, 3일의 ‘하치우쿠시’와 16일의 ‘주루쿠니치’는 구력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하치우비’는 신력 또는 구력으로 행해지며, 마을 단위의 정월 행사로는 ‘하치우비’가 유일하다.

2016년 1월 2일, 신자토에서는 마을의 대표 자격으로 구장 니시무라 마쓰세이 씨와 서기 미네이 아키라 씨가 오전 7시부터 ‘하치우비’를 실시했다. 원래 ‘하

8) 이하 해당내용은 2016년 1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및 DVD <佐敷町字新里『字誌』編集委員会(2015)『字誌新里 2000年』佐敷町字新里>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9) 2016년 1월 3일에 인터뷰를 행한 아라카키 유타(新垣有太, 남, 32세, 현공무원) 씨에 따르면, 40년 전쯤까지는 새해 첫날에 오키나와 각 지역에서 와카미지를 떠와 가족끼리 ‘미지나디’를 행하던 습속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습속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치우비’는 구3역(区三役)의 역할이지만, 올해는 정회(町会)의원이 불참하여 두 사람만으로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이다.

마을의 공민관(公民館)에서 출발하여 우이바텐가(上場天井戸)·시차바텐가(下場天井戸)·나카히자과(中樋川小)·우이누히자(上ノ樋川)·은카시우부가(昔産井戸) 등 마을 개척과 연고가 있는 함께 5곳의 배소(拜所)를 순배하는 데에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배소와 순배의 순서는 마을 장로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각 배소에서 구장과 서기는 간단한 제초 작업 등 정리를 한 후 작은 제단 위에 공물을 펼쳐놓고 합장을 하며 일 년간의 무사안녕에 대한 감사와 마을의 발전 및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공물은 빈시(瓶子)가 주이며, 서기가 개별적으로 준비한 과일을 함께 올렸다. 오키나와의 기원 행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빈시 상자에는 하나구미(花米)라고 부르는 쌀, 운샤쿠(御神酒)인 아와모리(泡盛), 그리고 향 ‘히라우코(平御香)’가 한 세트에 들어 있다. 이 때 향은 피우지 않았다. 이는 배소가 주로 불과한 상극 관계에 있는 ‘가(井泉)’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의 배소에서 기원을 마치면 빈시 등 공물을 정리하여 다음 배소로 이동, 동일한 방식으로 기원을 올렸다. 단순한 이 절차를 각 배소에서 정중하게 반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현재 신자토에서는 ‘하치우비’를 구력으로 거행하는 문추가 다수파이다. 2016년에는 현존하는 열여섯 문추 중 다섯 문추가 신력으로 ‘하치우비’를 행했다. 그 중 니시무라 문추는 수 년 전부터 ‘하치우비’를 신력으로 거행해 왔다. 이에 반하여 이세라(石原) 계통의 사쿠마 문추는 그때까지 구력으로 거행하던 ‘하치우비’를 2016년에 들어 신력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니시무라 문추에 속하는 구장 니시무라 씨와 사쿠마 문추에 속하는 서기 미네이 씨는 마을 단위와 문추 단위로 양쪽의 ‘하치우비’를 동시에 참여해야 했다.

2016년 1월 2일, 다섯 문추는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오전 7시 반 쯤부터 ‘하치우비’를 시작하였으며, 하나의 문추 당 적게는 네 명에서 많게는 스무 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 때문에 마을 단위에 비해 문추 단위의 ‘하치우비’ 거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덧붙여 문추 단위의 ‘하치우비’에서도 마을 단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빈시가 주요 공물로 사용되었으며, 참배 방식도 대체로 동일했다.

다만 문추 단위의 ‘하치우비’는 마을 단위의 그것과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있었다.

첫째, 마을 단위 ‘하치우비’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만으로 거행되지만, 문추 단위로 행해지는 ‘하치우비’에는 문추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마을 단위 ‘하치우비’는 신력으로 거행되지만, 문추 단위의 그것은 아직 구력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셋째, 마을 단위의 ‘하치우비’에서는 ‘가’만 순배하는 데에 비해 문추 단위의 ‘하치우비’에서는 ‘가’ 외에도 노로(祝女)의 거처인 누루둔치(ヌル殿内)에 반드시 참배한다는 점, 넷째, 마을 단위는 공민관에서 출발하지만, 문추 단위는 무투야(元家)에서 집합 및 해산을 한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 문추 단위에서는 ‘하치우비’를 마친 후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연례회의 성격의 음복 모임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난조 시 신자토 구 ‘하치우비’의 거행단위에 따른 비교

\	마을 단위	문추 단위
거행일	신력 1월 2일	신력 1월 2일 또는 구력 1월 2일
거행 주체	구3역	문추의 구성원
집합 및 해산 장소	공민관	무투야
배소	‘가’ 5개소	‘가’ 5개소, 누루둔치
공물 봉납	빈시, 과일	좌동
참배방식	배소 정리→공물 봉납→합장 및 기원	좌동
음복행사의 유무	무	유

위의 표 중 민속적 시간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거행일과 거행 주체 간의 관계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을 단위 ‘하치우비’의 거행 주체는 구3역이며, 이들이 거행일에 지정 장소에서 집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추 단위 ‘하치우비’의 거행 주체는 문추의 구성원들로서 그들의 참가 가능 여부는 거행일이 평일인가 휴일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곧 ‘하치우비’와 같은 민속행사를 구력으로 거행하느냐, 또는 신력으로 거행하느냐에 따라 거행 주체의 참가율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민속적 시간의 재편에 따라 신력에 따른 민속행사의 거행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 주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 3. 오кина와에서의 민속적 시간의 재편

시간에 대한 인식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공통된 시간의 흐름을 가진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대체로 주변 공간과 생산 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1872년 11월 19일에 역법의 개정을 발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태음태양력인 덴포력(天保曆)으로 12월 3일에 해당하는 날이 다음해, 즉 1873년 1월 1일이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태양력을 도입했다.

히라야마 노보루(平山昇)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는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정책의 일환으로써 구력을 억압하고 신력 사용을 장려·강제했다고 말해져 왔지만, 1872년 이후도 서민의 생활 차원에서는 구력 행사가 계속 행해졌으며, 그것이 1910년의 ‘또 한 번의 개력(改曆)’에 의해 크게 변화했다고 한다. 1910년부터 메이지 정부는 관력(官曆)에서의 구력 병기를 폐지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 병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1910년의 개정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구력 폐지’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sup>10)</sup> 요컨대 국가 정책에 따른 시간관념의 인식과 실천이 실생활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큐 왕국은 1372년 중국으로의 조공이래 중국의 역을 사용하고 있었다. 1465년에 복건(福建)에서 조력법(造曆法)을 배워 이후 류큐 국내에서도 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682년부터 1879년까지 발행되었던 역을 류큐력(琉球曆)이라 한다.<sup>11)</sup> 류큐 왕부는 중국의 역과 함께 24절기도 도입하여 행사 등의 택일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을의 제사는 구력을 바탕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연중행사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오кина와의 연중행사도 기본적으로는 일본 본토에서의 시간관념 변화 및 정부에 의한 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민속행사나 조상과 관련된 연중행사의 대부분이 여전히

10) 앞의 논문, 平山昇(2014), p.75, 82.

11) 渡邊欣雄 他編(2008) 『沖繩民俗辞典』 吉川弘文館, pp.216-217.

12) 김용의(2016)는 한일비교문화론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공휴일의 역사적 성립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 및 시대적 문맥을 분석한 바가 있다. 김용의(2016) 「일본 공휴일 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사회문화적 함의」 『일본근대학연구』 제5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185-200.

히 구력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кина와에서는 본토 복귀 전인 1956년부터 류큐 정부에 의해 ‘신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신정 일원화(新正月一本化)’가 추진되어 현재는 신정이 주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민추(海人)들의 존재가 많은 이토만 등에서는 신정도 물론 축하를 하지만, 신정보다 구정을 훨씬 성대하게 축하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현재도 구력 연말이 되면 술을 다시마로 짠 장식물이나 설 요리의 식재료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상품이 가게에 진열되고 신정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신불에게 설 장식물이나 술잔을 올리고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함과 동시에 새해를 축하한다.

한편으로 신불에 대한 ‘우간(御願)’을 위해 구정과 신정 양쪽 다 기원하는 가정도 있다. 옛날 오кина와가 농경사회였을 무렵, 빈번하게 상륙하는 태풍이나 가뭄 등의 혹독한 자연으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신들에게 기원하는 풍습이 자리를 잡았다. 이를 ‘우간’이라 한다. 구력이 들어간 달력에는 매월 신불(神仏)과 관계된 행사가 있으며, 그것과는 별도로 매월 1일과 15일에는 불단(仏壇)에 차, 부엌의 신인 히누칸(火の神)에게 흰쌀을 바치며 ‘우간’을 하고 있다. 이는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히누칸이나 조상에게 올리는 ‘우간’과 같은 연중행사는 시대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우유미(折目)·시치비(節日) 등으로 불리며 오랜 옛날부터 생활 속에 깊이 정착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연중 거행하는 ‘우간’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새해 들어 처음 행하는 ‘하쓰우간’이다.

‘하쓰우간’과 같은 새해맞이 의례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구력이 아니라 신력으로 거행하는 것은 현재 신정 전후가 공휴일인 까닭에 가족과 문추의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동시에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신자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토에서 ‘쇼과치’는 신력으로 거행되며, ‘하치우비’는 마을 단위의 경우 신력으로, 문추 단위의 경우는 신력 또는 구력으로 거행되고 있다.

신자토가 속해 있는 난조 시청의 2015-2016년도 연말연시 연휴는 2015년 12월 28일(월요일)부터 시작하여 2016년 1월 3일(일요일)까지 일주일간이었다. 이러한 관공서의 휴일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자토의 2016년도 문추 단위 ‘하치우비’에서 특히 젊은 층의 참가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매년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오кина와의 전통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그 실상이다. 바꿔 말하자면, 2016년도 ‘하치우비’에서 젊은 층의 참가 비율이 높았던 것은 연시의 일주일이라는 연휴가 그들에게 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공동체로서는 외지에서 귀향하는 사람들의 참가 및 편의를 위해서라도 민속의례의 시행시기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휴일로 지정된 일자로 민속적 시간을 재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결에 중점을 두고 새해맞이 의례를 신력으로 거행한 결과, 민속적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신자토에서는 아자(字), 즉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12종의 연중행사 중 ‘하치우비’만을 신력으로 거행하고 그 외의 행사는 전부 구력으로 거행하다보니 구력 12월의 민속행사를 해가 바뀐 새해에 거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신자토에서 행해온 구력 12월의 행사로는 12월 8일의 ‘무치(鬼餅)’, 12월 9일의 ‘무치유레(鬼餅寄合い)’, 12월 24일의 ‘우간부투치(御願解き)’, 12월 26일 이후에 행하는 ‘우와쿠루시(屠殺)’, 12월 30일의 ‘도시누유루(大晦日)’가 있다.<sup>13)</sup>

‘무치’는 산닌(月桃) 잎으로 싸서 찢 떡을 신불에 올리고 가내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처음으로 무치를 맞이하면 ‘하치무치(初鬼餅)’라고 하여 친척이나 주변에 떡을 나누어 준다. 산닌에는 벌레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액막이 의미도 포함하여 아이의 나이만큼 떡을 끈으로 묶어서 집에 매달고 아이가 앞으로 먹거리에 근심이 없도록 기원한다. ‘무치유레’는 공동 작업이나 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는 행사이다. 또 ‘우와쿠루시’는 설에 쓸 용도로 기르던 돼지를 공동으로 도살하여 나누는 행사이다. 그리고 ‘도시누유루’는 밭농사를 일찍 끝내고 농기구 종류를 씻어서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행사를 말한다.<sup>14)</sup>

13) DVD <佐敷町字新里『字誌』編集委員会(2015)『字誌新里 2000年』 佐敷町字新里>

14) 다카라 벤 저·김용의, 김희영 역(2016) 오кина와 사람들의 한해살이 민속원. pp.34-35.; 崎原恒新(2005)『琉球の死後の世界』むぎ社, pp.313-314.,

그 중 ‘우와쿠루시’는 이미 사라진 풍속이며, ‘도시누유루’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행한다. 현재도 여전히 거행되는 ‘무치’와 ‘무치유레’의 경우는 연말에 행하던 연초에 행하던 그 거행시기가 의례 본연의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가하는 의례도 아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후투치누우간(ガウチヌ御願)’이라고도 부르는 ‘우간부투치’의 경우는 다르다.

‘우간부투치’는 히누칸이 승천하여 일 년 간 일어난 사건을 하늘의 신에게 보고하는 날로 간주되고 있다. 가정에서 행하는 경우는 처음에 ‘야시키우간(屋敷御願)’을 행하고 히누칸 주변의 먼지를 털어내어 집 부지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 다음으로 히누칸에 향을 7개 올리거나 빈시 외에 곤펜(薰餅)이라는 구운 과자를 10개 바치고 일 년을 무사 평온하게 지낸 것에 대해 배소를 돌며 감사를 올리고 연시에 기원했던 것을 없애주도록 ‘우간’을 한다. ‘우간’에서는 “공물을 가지고 기원하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합장을 한다. 이때에 “하늘의 신에게는 좋은 일만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활력을 재충전하여 돌아와 주십시오.” 같은 말도 함께 기원한다. 잠시 후 “공물을 치우겠습니다.”라고 다시 인사를 하고 아와모리를 향에 뿌린다.

이 ‘우간부투치’는 각 가정에서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행사 또는 문추라는 공동체 단위로도 거행된다. 신자토의 경우는 ‘6월 우마치(六月ウマチー)’에 이어 참배해야 하는 배소가 가장 많은 의례이며, 본래의 목적은 그 해 ‘하치우비’ 때의 ‘우간’을 해제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우간’을 말소함으로써 새해 들어 새로운 ‘우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대로라면 ‘우간부투치’ 이후에 새해의 ‘하치우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하치우비’의 시행일이 신력으로 이행한 까닭에 지난해의 ‘우간’을 해제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우간’을 올리게 되어버린 것이다.

난조 시 오자토 정(大里町) 아자 미네이(嶺井)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sup>15)</sup> 미네이에서 현행되는 민속행사는 연 13종인데, 그 시행시기가 신력 또는 구력으로 일관적이지 않다. 2011년의 경우, ‘가미시미(神清明)’는 신력 4월 6일, 줄다리기가 신력 7월 26일, ‘노료마쓰리(納涼まつり)’는 신력 8월 27일, 격년제인

15) 이하 해당 내용은 2011년 9월 및 10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중 시로마 세이키(城間正義, 남, 88세, 농업) 씨를 비롯하여 신자토 겐스케(新里前助, 남, 87세, 농업) 씨 및 시로마 기요시(城間清, 남, 69세, 농업) 씨의 구술을 바탕으로 하고, 大里村史編集委員会(1982) 『大里村史 資料編』 大里村役場, pp.558-559.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확인했다.

‘아가리우마이(東御廻り)’도 신력 10월 23일, ‘하쓰우간’은 신력으로 2012년 1월 2일에 각각 거행했다. 그리고 이 5종을 제외한 나머지 8종은 구력으로 행했다. 이 미네이에서도 ‘우간부투치’를 구력 12월 24일에 해당하는 신력 1월 17일, 즉 ‘하쓰우간’ 이후에 거행하게 되어 신자토와 동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간부투치’의 지속을 위해 그 거행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 시행시기를 ‘하쓰우간’처럼 신력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절기에 알맞은 의례는 천체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려는 문화적 대응이며, 이것은 우주의 변화를 읽어내는 세계관적 인식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우간부투치’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자칫 그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조차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 4. 맺음말

사회와 문화를 바꾸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정치권력의 선택성에 있다. 일본의 경우, 태양력 도입은 ‘문명’이라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었다.

태음태양력을 태양력으로 바꾼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미시적으로는 시간과 관련된 모든 일상생활과 근무일, 공휴일 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간을 서양을 기준으로 한 표준시간으로 바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질서에 맞춘 것이며, 달리 말한다면 제국주의 열강이 정한 코드에 맞물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sup>17)</sup> 요컨대 기존의 역인 태음태양력과 새 태양력 사이에 과학적 이론의 우열이 존재했기 때문에 태양력이 도입되었던 것은 아니며, 오직 힘의 관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음태양력은 삭망월과 회귀년을 같이 취하여 적당히 조정해서 엮은 달력이다.<sup>18)</sup> 천문현상을 반영해 만들어진 태음태양력을 옛것이어서 비과학적이고 불

16) 임재해(1990)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제23집, 한국민속학, p.298.

17) 鈴木洋仁(2014) 「時間意識の近代-元号、皇紀、新曆を素材として」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紀要 情報学研究』 No.86,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 pp.78-80.

18) 서광석(2012) 「24절기는 음력?양력?-윤달을 보내면서 달력을 보다-」 『열린전북』 제150호, 열린전북, p.63.

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역 자체의 논리만 놓고 따진다면, 실제 달과 해의 운행을 엄밀히 맞추려고 노력했던 전통적인 태음태양력이 임의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는 것보다 더 과학적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은 이루어졌고, 이는 낡은 습속과 민간신앙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효과도 있었다.<sup>19)</sup> 용어부터 ‘구력’은 낡고 ‘신력’은 ‘진보’라는 시간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력에 따른 습속과 신앙은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구력에 따른 생활 영위를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도 새로운 시간의 제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sup>20)</sup> 한경구(2007)는 태양력의 도입으로 구력에 따라 행해지던 전통적 연중행사의 절기가 신력으로 그대로 변화하거나 1개월 늦춰져 신력으로 정착된 것은 연중행사의 시간적 기원을 근대국가가 강조하는 중심의 시간이 압도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과 타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았다.<sup>21)</sup> 오키나와에서 역이 이중적 체제로 되어 있고 민속적 시간이 재편되어가는 것 또한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키나와의 새해맞이 민속행사 중 신자토의 ‘하쓰우간’ 사례를 민속적 시간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쓰우간’은 구력 1월 2일에 위치한 행사인데, 이를 신력으로 치환시켜 1월의 행사가 됨으로써 한 해의 기원을 해제하는 연말행사 ‘우간부투치’는 그 고유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간부투치’는 시행시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본래 목적의 형해화에 따라 자칫 그 의례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에서 하나의 민속행사가 상황의 변화와 그것의 적응력에 따라 재편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을 밝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민속적 시간의 재편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 주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 재편이 다른 민속행사의 변모로 연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민속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키나와의 여타 민속 문화의 시

19) 신동원(2005) 「양력과 음력」 『역사비평』 73호, 역사비평사, p.123.

20) 顔杏如(2011) 「『帝国の時間』と植民地台湾-天長節と紀元節を例として-」 『日本台湾学会報』第十三号, 日本台湾学会, p.52.

21) 한경구(2007) 「현대 일본인의 중심의 시간과 주변의 시간」 『한일공동연구 총서』 1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205.

간적 재편에 대해서도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민속행사는 시간의 재편뿐만이 아니라 거행 공간의 이동에 의해서도 변용된다. 민속적 시간의 재편과 그에 따른 민속적 의미의 상실은 공간의 변화와 함께 고찰했을 때 논의점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민속적 공간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난조 시 지넨 정(知念町) 아자 아자마(安座間)에 거주하는 나카무라 세이키(仲村正義, 남, 80세, 숙박업) 씨는 2016년 1월 1일 오후, 가족과 함께 호국신사(護国神社)로 가서 ‘하쓰모테’를 행했다.

이전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하쓰모테’ 장소로 주로 찾던 곳은 류큐 8사(琉球八社)<sup>22)</sup>였지만, 최근에는 호국신사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호국신사는 1936년 구 내무대신 지정으로 청일·러일전쟁 이후의 순국한 영령들을 모시기 위해 창건된 초혼사(招魂社)에서 비롯한다. 호국신사가 ‘하쓰모테’ 장소로 인기가 있는 것은 나하 시 오우노야마 공원(奥武山公園) 안에 소재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간’이라는 종교적 실천 자체가 중요하며 ‘우간’을 하는 장소의 성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있어서 민속적 공간의 재편은 사람들의 생활 주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보다 정직한 분석·고찰은 향후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미화(2016)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紀年法－제왕의 시간에서 민족/국민의 시간으로」 『사회와 역사』 제110집, 한국사회사학회, p.173.
- 김용의(2016) 「일본 공휴일 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사회문화적 함의」 『일본근대학연구』 제5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185-200.
- 다카라 벤 저·김용의, 김희영 역(2016) 오키나와 사람들의 한해살이 민속원, pp.34-35.
- E.G. 리처즈 저·이민아 역(2003) 『시간의지도: 달력』 까치, pp.288-308.
- 서광석(2012) 「24절기는 음력?양력?－윤달을 보내면서 달력을 보다－」 『열린전북』 제150호, 열린전북, p.63.

22) 류큐 8사는 류큐 왕국 시대에 관사(官社) 제도에 의해 왕부의 특별 관리를 받던 곳으로서 나미노우에구(波土宮)·오키노구(沖宮)·시키나구(識名宮)·후텐마구(普天滿宮)·스에요시구(末吉宮)·아사토하치만구(安里八幡宮)·아메쿠구(天久宮)·긴구(金武宮) 등을 가리킨다.

- 신동원(2005) 「양력과 음력」 『역사비평』 73호, 역사비평사, p.123.  
임재해(1990)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제23집, 한국민속학회, p.298.  
한경구(2007) 「현대 일본인의 중심의 시간과 주변의 시간」 『한일공동연구 총서』 1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205.
- 沖縄県教育庁文化課 編(1997) 『東御廻り等関連拜所総合調査Ⅱ』 沖縄県教育委員会, pp.3-67.  
大里村史編集委員会(1982) 『大里村史 資料編』 大里村役場, pp.558-559.  
顔杏如(2011) 「「帝国の時間」と植民地台湾-天長節と紀元節を例として-」 『日本台湾学会報』 第13号, 日本台湾学会, p.52.  
崎原恒新(2005) 『琉球の死後の世界』 むぎ社, pp.313-314.  
謝荔(2010) 「日本社会における「時」の意識の変化-「時」関連資料の文化財指定、旧暦への再認識に関する一考察」 『多摩論集』 第26号, 法政大学, p.131.  
鈴木洋仁(2014) 「時間意識の近代-元号、皇紀、新暦を素材として」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紀要 情報学研究』 No.86,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 pp.78-80.  
平山昇(2014) 「近代日本の正月行事における旧暦と新暦-西宮神社十日戎を事例に-」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75, 82.  
渡邊欣雄 他編(2008) 『沖縄民俗辞典』 吉川弘文館, pp.216-217.

DVD <佐敷町字新里『字誌』編集委員会(2015) 『字誌新里 2000年』 佐敷町字新里>

<http://www.city.itoman.lg.jp/docs/2013020101921/>(검색일 2017.08.26.)

<http://www.city.miyakojima.lg.jp/kanko/index.html>(검색일 2017.08.26.)

논문 투고 일자 : 2017. 08. 31.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要旨＞

沖縄における民俗的時間の再編  
-南城市の‘初拜’事例の考察-

金希英

沖縄社会に於ては、基本的には新曆に基づいて生活しているが、伝統的な村行事や神事及び家庭内の行事は旧曆によって行われる。すなわち、日常生活の中に旧曆と新曆との二つの流れが見られるのである。正月は、1956年より‘新正一元化’が進み、現在は新正が主流となっている。本稿では、2015年12月から2016年1月にかけて実施した南城市佐敷町字新里の現地調査の結果を踏まえて、沖縄における新年への民俗行事の中、特に‘初拜’の施行時期の再編について考察した。新里で初拜が生活と密着している旧曆ではなく、新曆に基づいて行われるのは、その施行日が公休日であり、挙行主体あるいは共同体の構成員が集まりやすいという長所が大きく働いているためである。一方、旧曆12月24日に行われる‘御願解き’は、当年の初拜の祈願を解除するのが元々の意味であった。既存の祈願を抹消することで、また新しい祈願が出来るためである。それで行事の目的を考えれば、御願解き以降、新年の初拜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が、初拜の施行日が新曆への移行に従い、前年の祈願は解除出来ず、そのまま新しい祈願を挙げ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れは大里町嶺井区の場合も同じである。が、御願解きの施行時期を変更するのはそれ自体の消滅につながる可能性さえある。これで沖縄の一つの民俗行事が、新曆採用という状況の変化と、その適応力により、再編、または消滅する過程を確認した。

The Reorganization of a Folklore Day in Okinawa

Kim, Hee-Young

Generally, Okinawans live according to the solar calendar, but they celebrate the traditional town occasions or ceremonies for their god and family events according to the lunisolar calendar. Both the solar calendar and the lunisolar calendar exists in their daily lives.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t layers of the community in regard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time for enforcement of the ritual “Hatsugan” among the traditional events for New Year’s Day. It is based on the field survey results in Shinzato, Nanjo-city, carried out from December 2015 to January 2016. Because New Year’s Day is a public holiday and the community members can be assembled, “Hatsugan” is celebrated on the date indicated on the solar calendar; it is not on the lunisolar calendar, which is more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in Shinzato.

However, the primary purpose of “Uganbutuchi,” celebrated on December 24<sup>th</sup> of the lunisolar calendar, is to remove the hope in the year “Hatsugan.” By erasing the existing hope, they can pray for the new year. Originally, the new year “Hatsugan” is followed by “Uganbutuchi,” but because the date of “Hatsugan” is celebrated according to the solar calendar, the new year’s prayer is offered up without removing the last year’s hope. It is the same with the case of Minei, Nanjo-cit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itual, the change of the time for enforcement of “Uganbutuchi” can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ritual. Through this example, it was confirmed that a folk ritual could be reorganized and destroyed by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its adaptabilities.